

‘징용소송’ 급류탄다

한국내 피해자들 집단제소 가세

미쓰비시등 일본기업 상대 중국인들도 동참·미여론 고조

2차대전중 일제에 의해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한인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집단 소송에 본국 피해자들도 가세, 징용피해자들의 대 일본기업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피해자들도 22일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강제노역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 미 주류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대 일본기업 배상소송이 다른 민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한인들의 집단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들을 포함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대상기업은 미쓰비시, 후지코시, 미쓰이, 신일본 제철등 일본 굴지의 회사들이다.

이번 소송의 담당변호사는 배리 피셔 세계인권 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케네스 한, 김기준 변호사 등으로 다음주중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있는 징용피해자가

미국에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한국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직접 소송을 추진하려 했으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배리 피셔 변호사는 이날 “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는 최소 수백만명”이라며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역사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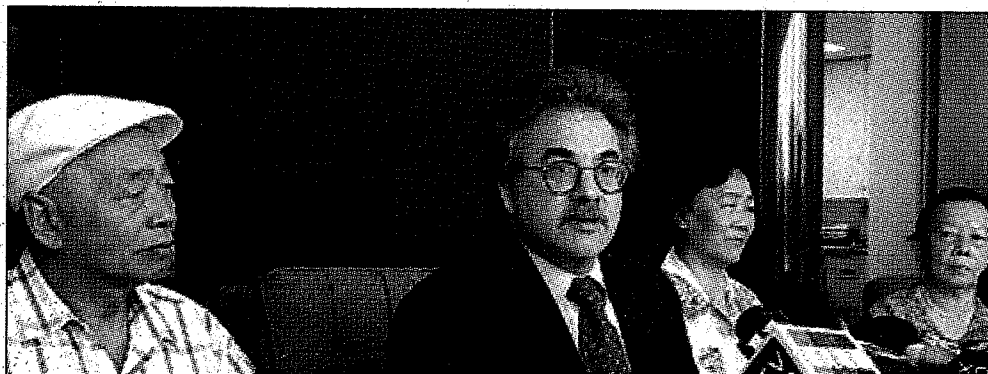
〈3면에 계속·황성락 기자〉



반인륜적 일제의 만행 처벌돼야

피해자 권오현씨

“2차대전중 일제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중국인 리 피셔 변호사(왼쪽 두번째)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가한 에
있다.

효창공원
규모의
12월 완
중이다.
진 기자〉

한 근원적인
해야만 한다”

케자는 “임시
보수작업 보
인사회가 힘
원의 관리·
해야 한다”고
사회의 무관
이 방치된 한
고 있다.

마다 한인사
우정의 종각
각의 훼손상
문과 개각을



가을이 성큼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코스모스가 LA에도 피었다.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한인타운 인근 길가에 한들한들 피어난 코스모스가 성급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이승관 기자〉

위안부 출신 인권상 수상

한국·필리핀등 아시아 여성 10명

미 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배상을 촉구하는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이 미 국회 의사당에서 인권상을 받는다.

이 인권상은 오는 9월20일 미 국회 의사당 레이번빌딩에서 열리는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2000년 인권상’으로 수상자는 한국 6명(김상희, 문필기, 황금주, 김을례, 이용수, 김분선), 필리핀 2명, 중국과 대만 각 1명 등 10명이다.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

변호인단이 공동 개최하고 워싱턴지역 한인회와 중국, 필리핀, 일본 등지의 인권 단체들이 후원하는 이번 인권상은 수치심을 무릅쓰고 일본의 만행을 폭로한 위안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 지역 정대위의 이동우 회장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이처럼 미국에 많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안부문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17일부터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위안부 문제 심포지

잇달아 징용소송

〈1면서 계속〉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재원(LA), 김석윤(샌프란시스코), 최재식(시애틀)씨등 3명이 개별적으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일제의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9명은 이날 배리 피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이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셔 변호사는 “나치 독일 관련기업이 최근 총62억5,000만달러의 전쟁피해 배상을 합의한 것과 달리 일본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용 및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이 연방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케네스 한 변호사는 “작년 7월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징용배상 관련 법률(354.6항)이 발효됐기 때문”이라며 “이 법률은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아 이서적

DONG-A BOOK PLAZA

찾으시는 모든 책이 다 있습니다

- 한국책 (일반도서, 교과서, 참고서, 전문서적)
- 미국학습서 (Teacher's Supplies 교과서, 참고서, 리딩교재)
- 음악책 (한국교재 및 미국교재)